

U-20 여자월드컵 16강 사령탑의 각오

# “침착하게 경기 준비 중 매 순간 최선 다할 것”

오늘 오전 10시 '홈팀' 콜롬비아와 경기  
박윤정 감독 “수비적인 부분에 더 집중”

‘2024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콜롬비아 여자 월드컵’에서 ‘홈팀’ 콜롬비아와의 16강전을 앞둔 박윤정 여자 U-20 대표팀 감독이 냉정하고 침착하게 경기를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



2024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콜롬비아와의 16강전을 앞두고 있는 한국 여자 20세 이하(U-20) 대표팀 박윤정 감독.

박윤정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오는 12일 오전 10시(한국시각) 콜롬비아 칼리의 파스쿠알 게레로 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2024 FIFA U-20 여자 월드컵’ 16강전을 치른다.

한국 대표팀은 지난 8일 조별리그 D조 최종 3차전에서 강호 독일을 1-0으로 격파하면서 극적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이번 대회는 A조부터 F조까지 6개 조 중 각 조 상위 1, 2위 12팀과 각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4팀이 16강에 오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조 카메룬, B조 캐나다, F조 아르헨티나와 더불어 3위 자격으로 16강에 오른 한국은 대진표에 따라 개최국 콜롬비아를 상대하게 됐다.

‘홈팀’ 콜롬비아와 16강전을 하루 앞둔 박윤정 감독은 “콜롬비아 공격수들이 스피드와 개인기, 마무리 능력 모두 출중하다”며 “수비적인

거나 자만하지 말고 늘 해왔던 대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에게 “선수들에게 팬들의 응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다”며 “선수들이 힘들 때 한 발 더 뛸 수 있도록 지금처럼 큰 응원을 지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 주장으로서 선수들이 이끌고 16강에 오른 전유경(위덕대)은 두 번째 월드컵 도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2년 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U-20 월드컵 당시 막내로 대회에 나서 1승 2패로 조별리그 탈락을 경험했다.

이에 대해 전유경은 “두 번째 도전인 만큼 더욱 간절했는데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제 인생에 다시 나올 수 없는 월드컵이라서 더 기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유경은 “2년 전에 비해 많이 성장한 것 같다”며 “이번 대표팀에선 주장으로서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표팀 선수들이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뉴시스



‘무주 태권도원 2024 세계태권도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이 지난 6일 마친 가운데 무주반딧불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얻었다. 사진은 세계태권도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에서 경기에 임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다.

## 새로운 방식의 태권도 경기, 기분 좋게 마무리

세계태권도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 반딧불축제 등과 연계 ‘호평’  
9개국 110여명, 개인전 7체급 · 복식 3체급 · 혼성 단체전서 경합

세계태권도연맹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가 개최한 ‘무주 태권도원 2024 세계태권도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이하,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이 지난 6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대회에는 9개국 110여명이 개인전 7체급, 복식 3체급, 혼성 단체전에 출전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종현)은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에 참가한 국내외 선수,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축제 및 문화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평을 얻었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무주반딧불축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당일 경기를 마치고 축제장을 찾아 다양한 공연과 낙화 놀이

등 지역을 대표하는 반딧불 축제 체험을 지원했다. 또한, 반딧불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태권도원과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스탬프 투어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대회가 치러지는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는 ‘태권도 · 문화체험존’을 운영해 경기 관람과 함께 태권도 가상 격투 체험, 레진아트, 비즈 스트랩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대회를 찾은 4,431명의 방문객들에게 국제 태권도 대회 관람과 문화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태권도진흥재단 김종현 이사장은

“옥타곤 다이아몬드게임과 반딧불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업을 통해 대회와 축제가 모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특히 이번 대회 슬로건인 ‘태권도의 새로운 물결’(New Wave of Taekwondo)처럼 환한 날개 짓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 2028년 LA 올림픽 무대에서 태권도 혼성 단체전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 태권도원 2024 세계태권도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 개인전 남자 부문은 트윈다(-58kg), 멕시코(-68kg), 프랑스(-80kg), 카자흐스탄(+80kg)가 개인전 여자 부문에서는 멕시코(-57kg), 호주(-67kg), 프랑스(+67kg)가 우승을 차지했다. 복식전 남자는 멕시코(-130kg)와 한국(-160kg)이, 복식전 여자 부문은 프랑스(-135kg)가 우승을 차지했다. 혼성 단체전에서는 한국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뉴시스



## 완주 상관이, 도민체전 승마 부문 ‘깜짝’ 우승

한달 전 완주에 ‘등지’

완주군 공공승마장(대표 최지나)이 전북도민체전 승마경기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다.

11일 완주군은 승마경기 장애물 80class 일반부 경기에 완주승마협회 소속 김정연 선수와 함께 출전한 완주 상관이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상관은 지난달 10일 완주군에서 구입한 말로, 짧은 연습 기간에도 불

구하고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큰 주목을 받았다.

최지나 대표는 “상관이가 완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 무척 기쁘다”며 “완주군 공공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공공승마장을 통해 전국단위 승마대회를 매년 유치하고, 관련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 전북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순창군 선수단 결단식 개최

순창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영일)가 11일 장애인체육관에서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앞둔 순창군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손종석 의장, 이흥주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임·직원, 종목별 감독과 선수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선전을 기원하는 결의를

다졌다.

이번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순창군 선수단은 장애인체육회 임원 40명과 15개 종목의 임원, 선수 144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열리는 이번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27일부터 3일간 순창군 일원에서 도내 14개 시·군에



서 2,200여 명의 임원과 선수가 참가해 19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 △△ ☀️ ☁️

그리고 여유...

여기가 무주네!

자연체험시무주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